

교사가 아들 성적 조작

광주 모 중학교, 중간·학년말 고사 OMR 고쳐 ‘파문’

광주의 한 중학교 현직 여교사가 자신이 제작중인 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시험 답안지를 수차례에 걸쳐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동부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중학교 K교사는 지난해 1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이 학교 2학년 재학생이던 아들의 중간·학년말 고사 OMR답안지 중 수학 등 8개 과목을 고쳐 조작했다.

3학년 담임인 K교사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학년말 고사 때 아들 반 전체 학생의 수학시험 답안지를 빼돌려 이 가운데 아들의 답안지를 조작했다. 그러나 수학시험 감독 교사가 자신의 서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K교사 아들의 답안지에만 서명이 없는 점을 발견해 조작여부를 의심

하고 K교사에게 추궁해 시인받았다. 수학은 학년말 고사 12개 과목 중 첫 시험이어서 추가 조작은 없었다.

교육청 감사결과 K교사는 아들과 같은 반에서 성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답안지를 보고 OMR카드를 새로 작성해 교체했으며, 아들의 OMR카드는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측은 애초 K교사 아들이 작성한 시험지에 체크된 답을 토대로 답안지를 재작성해 성적처리를 했으며 동부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동부교육청은 감사에 착수, K교사가 지난해 6월에 치러진 중간고사에서도 아들의 답안지를 7개 과목에 걸쳐 조작했으며, 이에 앞서 같은 해 1학기 시험에서도 1개 과목의 답안지를 조작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K교사의 아들은 평소 중위권 정도의 성적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교육청 관계자는 “K교사가 아들의 성적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평소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답안지를 참고했다”면서 “학생들의 과목별 실력 격차가 크고, OMR카드로 옮겨 적으면서 다르게 기재되기도 해 성적을 올리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남편과 이혼한 뒤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K교사는 교육청 감사에서 “아들을 생각해 순간적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교육청은 지난 23일 K교사를 해임 등 중징계하고 관리책임을 물어 교장을 전보, 교감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여교수의 ‘간계’

〈奸計〉

40대 독신...선배 부부 갈라놓으려 ‘문자 테러’

노골적 성관계 제안까지...벌금 70만원 ‘짓값’

평소 알고 지내던 교수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교묘한 수법으로 ‘문자 테러’를 한 40대 독신 여교수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호남대 여교수 N씨는 전남대 교수인 H씨와 그의 아내 K씨의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휴대전화로 집요하게 ‘문자 테러’를 했다가 결국 ‘짓값’을 치렀다.

N교수가 H교수 부부에 대한 ‘이간질’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 21일. N교수는 이날 K씨에게 “사랑한다. 보고싶다”란 문자를 시작으로 점차 노골적인 성관계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한 달여간 9차례에 걸쳐

처 문자를 보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K씨가 마치 불륜을 저지르는 것 처럼 꾸민 것이다.

동시에 N교수는 남편인 H교수에게는 “부인 단속 잘하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조사 결과 N교수는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같은 학과 선배인 H교수와 공동연구 때문에 가끔 만났다. 하지만 이를 H교수의 아내인 K씨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N교수의 간계(奸計)는 H교수 부부가 광주동부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 발신자 추적에 들어가자 단박에 들쭉났다. 경찰은 ‘문자 테러’를 한 휴대전화가 N교수의 어머니

등 측근들의 명의임을 확인했다.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N교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약식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H교수 부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K씨는 N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사이버 테러를 막기 위해 법원에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광주지법 민사5부는 최근 N교수에게 K씨에 관한 내용의 글을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송하거나 유포할 경우 1차례에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N교수는 “노모가 휴대전화를 분실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H교수 부부에 대해 맞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8047) 김장동



10대 3명 주유소 털어

광주북부경찰은 25일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유소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정보(19군) 등 10대 3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정군 등은 지난해 12월 27일 밤 10시께 2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던 광주시 북구 임동의 한 주유소 금고에서 273만원을 훔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이종행기자 galee@

육군 장병 9천만원 통장 주인 찾아줘

○...육군 장병들이 9천만원이 예금된 통장과 도장을

등을 주인에게 돌려줘 화제.

○...목포시 동명동 예비군 중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김태현(24) 상병과 이성진(22) 일병 등 2명은 지난 19일 오전 8시께 예비군 중대 인근 마을 주변을 청소하다가 정자 위에 놓인 가방을 발견, 가방 안에서 주인의 전화번호를 찾아 되돌려줬다는 것.

○...가방 안에는 9천만원이 예금된 통장과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거래명세서 등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문서와 귀중품이 있었으나 김 상병 등은 발견과 동시에 곧바로 거래명세서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가방 주인 이모(35)씨에게 연락.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학부모 교사 연구부장 맡기지 말아야”

광주 10개 고교에 33명...의혹·민원 제기 잇따라

광주·전남 일부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본인 자녀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교육계에 서는 교사와 자녀의 동일 학교 배정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휘국 광주시교육위원은 올 1월 열린 임시회에서 “교사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근무하는 것은 여러가지 오해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 위원은 “학부모인 교사가 자신의 자녀 성적 조작 등 각종 유혹을 받을 우려가 대단히 높다”면서 “특히 교사들이 생활 지도나 각종 시상, 외부 대회 대표 선발, 성적 산출 등에서 공정하지 못한 처신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일반계 45개교 중 10개 고교 33명이 부모가 재직중인 학교의 재학생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초·중학교는 통계가 없다.

지난해 광주 모 고교에서는 2학년 담임교사가 자신의 자녀 수업에 참여

하면서 성적 조작이나 시험문제 유출 등의 우려가 높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전남 모 고교에서는 연구부장이 근무 중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특히 “해당 학생의 시험 성적이 교내 시험의 경우 우수한 반면, 전국 단위 시험에서는 그다지 좋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에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각종 의혹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학생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통 장 담그기

25일 광주시 남구 압촌동 ‘광주공동농협센터’에서 압촌 메주영농조합 주최로 열린 ‘제7회 전통 장 담그는 날’ 행사에 참가한 이주여성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재래식 간장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담근 된장과 간장은 숙성정장을 거친 후 올 여름 행사 참가자들에게 보내준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돈 뜯어 선배들에 상납했다”

갈취 중학생 수사 확대

동급생들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는 중학생 7명에 대해 수사(본부 25일자 6면)를 벌이고 있는 광주광산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상급생들에게 금품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 수

사를 확대하고 있다.

25일 광산경찰에 따르면 광주 A중학교 1학년 김모(13)군과 B중학교 1학년 이모(13)군 등 2개 학교 동급생 7명은 최근 8개월 동안 이들 학교와 학교 인근 아파트 등에서 두 학교 1학년생 9명을 때리거나 위협해 200여차

래에 걸쳐 50여만원을 빼앗은 뒤, 이를 누군가에게 ‘상납’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군 등이 금품을 상납한 선배가 누구인지, 또 상납을 강요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지난해 11~12월 전국 초·중·고 64개교 학생 4천7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2%가 학교폭력에 시달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김형호기자 khh@

영광 금은방 강도 주범 검거

경기 동두천서 ... 3인조 전원 붙잡아

영광경찰은 25일 합평군에서 경찰의 검문을 뚫고 도주한 ‘영광 금은방 강도 사건’의 용의자 김모(4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45분께 김씨

가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동두천 우체국 인근에서 잠복하다 김씨를 검거했다. 이로써 앞서 붙잡힌 공범 2명에 이어 영광 3인조 금은방 강도가 전원 검거됐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합평군 나산면사무소 앞 3거리에서 검문 도중 달아났으며, 경찰에 의해 공개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영광 금은방 강도 사건의 주변인 김씨를 상대로 장물 처분처를 캐는 한편, 여죄를 추궁 중이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PEET / MEET / DEET 전문학원

[약학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MDPass **의학학원** 출신이 아니라면 합격은 어렵다" 이 한마디를 위해...

심화과정

개강 3월 2일

단일원 기술문제 풀이

개강 5월 3일

FINAL 예상문제 풀이

개강 7월 6일

특설1 기초시작반

2개월 완성

2010년 8월 시험 대비를 위한 기초 필수과목 이수반

2011년 8월 시험 대비를 위한 기초 필수과목 이수반

2011년 8월 시험 대비를 위한 기초 필수과목 이수반

개강: 3월 2일

특설2 기초영어

공인영어 TOEIC, TOEFL 고득점 취득을 위한 토익 4차기 2~4급 기초과정 1~4급 고급과정

주 2시간씩 체계적인 강의

월금 8만원, 월금 4만원, 월금 4만원

개강: 3월 8일

검정원 최고강사 김사장의

박철 출강 강의

특별초빙

과목: 일반생물학

한국생물학회 전문강사 김사장의

아름다운 교수님을 특별 초빙합니다

MDPass **의학학원**

광주 263-5453, 430-2200 전주 255-9119

mdpass.co.kr (광주 북구청 맞은편)